

< 말라위에서 보내는 2025년도 첫 선교편지 >

말라위에서의 삶은 참으로 힘든 것 같다. 현지인 뿐만 아니라 선교사의 일상도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지난 달에 50,000과차 였던 옥수수 한가마가 새해 들어 60,000과차로 오르더니 이제는 65,000과차로 올랐습니다. 그것도 다음주에는 70,000과차로 오른다고 하니 참으로 어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달에 아주 심각했던 기름상황이 조금 나아 지는 것 같더니만 또 다시 기름구입을 하려면 그 긴 줄을 서야 하는 답답한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말라위는 다람쥐 쳇 바퀴 돌듯이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

국경지대인 탄자니아와 모잠비크에서도 말라위에는 기름을 팔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소식이 들려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현지인들의 얼굴에는 짜증 섞인 얼굴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체념한 것인지 달관한 것인지 모르지만 우기를 맞이해서 또 다시 옥수수 농사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옥수수나눔



해마다 헝거 시즌이면 그동안 저장해 놓았던 옥수수를 한가마씩 나눠 주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거의 십여 년을 한번도 빠뜨리지 않고 열 배 씩이나 올라버린 옥수수를 빠짐없이 나눠 줄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이 저희에게 행하신 기적입니다.

옥수수를 나눠 주기전에는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채우고 처음보는 New Face들도 많이 보이지만 일단 옥수수를 나눠 주고

나면 썰물처럼 빠지는 게 말라위의 신앙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옥수수 구제사역은 힘들고 비싼 희생과 노력이 들지라도 후회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200여명에게 나눠 줄 여유가 생겨 좋았습니다. 60여명의 현지인 목회자 수료자들과 평신도 제자훈련 그리고 심지어는 Youth Ministry에게도 한가마씩 안겨주었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The wave of Grace(은혜의 물결)이라고 표현했는데 딱 맞는 표현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 헝거시즌의 피크(절정)이니까 50키로 한가마면 5-6인 한가정이 두 달은 버틸 수 있으므로 4월에 끝나는 헝거시즌을 잘 버틸 수 있습니다.

- 목회자 훈련



원래 목회자 훈련은 1년에 2회 또는 분기별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말라위 경제 문제로 인하여 3고 즉 고유가 고물가 고회환율로 인하여 작년엔 목회자 훈련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작년 10월에 목회자 훈련을 계획하였으나 유류파동으로 인하여 두차례나 연기되어 끝내는 목회자 훈련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25년도 새해에 1월2일부터 4일까지 2박3일간의 숙박훈련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어렵게 목회자 훈련을 오픈해서 었던지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쳤습니

다. 말라위에서 제자훈련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특히 이번 목회자 훈련에서 남자 목회자들 중 몇몇이 그동안의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낱알이 자기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말라위에서도 변화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60명의 목회자들이 각 지역에서 몰려들었습니다. 당초에는 70명으로 계획하였지만 밤에 숙식문제의 한계로 인해 60명으로 제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의 제자훈련 강의는 예수님의 사람들 교재를 영어로 번역하여 주로 영성강의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통하지 않을 것 같은 분야가 생각 외로 많은 감동과 은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강의 주제가 회개인 마지막날에는 십자가에 직접 자기의 죄를 못박는 이벤트를 하여 더욱 생생하게 자신의 죄를 돌아 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세미나 기간이 너무 짧다고 하여 금년에는 세미나 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고려해볼 계획입니다.

돌아가는 목회자들에게 옥수수가루 한부대와 다른 선물들을 한 아름씩 안고 가는 저들을 바라보는 저자신과 센터 스태프들 에게 흐뭇함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주일학교



항상 어린이들이 말라리아 질병 등으로 죽어 갈때마다 항상 주님께

죄송스러웠습니다. 말라위는 전체인구 중의 60% 이상이 어린이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안에서 살고 있는 식구들의 경우에도 작년에 2명의 아기가 태어 났고 새해들어서도 또 한 명의 아기가 태어 났습니다.

참으로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아내는 아기용품과 더불어 산모에게 필요한 용품들을 준비해주어 같은 식구들로 대해 줍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마다 이름을 부탁하여 지금껏 평소 제가 좋아하는 성경인물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첫 제자의 아들이름인 다니엘, 여호수아, 요셉, 야곱 그리고 이번에는 존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솔로몬이 이름을 부탁하여 요한복음을 읽다가 부탁을 받았으니 요한(John)이 어떻겠냐고 하였더니 기쁘게 받아 들였습니다.

어쨌든 저희 센터와 교회에서는 별도의 어린이(유치원) 사역은 하였지만 유년주일학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45명으로 시작을 하였는데 그 다음주에는 150여명의 어린이가 몰려들었습니다.

이 어린 영혼들에게 다음세대의 말라위를 위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여 봅니다. 샬롬

- 네분의 목회자 방문



한국에서 목회를 열심히 하시는 네 분의 목회자님들이 저희 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시에 특히 저희 센터에서 필요한 많은 그릇들과 귀한 쌀국수와 떡볶이 떡과 고추가루를 가져와서 여러가지 유용하게 사역에 사용하였습니다.

더우기 이 목사님들은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 말라위 선교에 많이 유익을 주었습니다.

특히 유치원 사역을 할 때 어린이들에게 영양죽을 아주 오래된 프라스틱 스푼과 접시를 쓰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 스텐 스푼과 스텐그릇을 사주었습니다. 유치원아이들이 새것이라고 어찌 좋아 하는지 평소에 먹는 양의 배를 먹었습니다.

현재 65명의 유치원생들이 센터에 다니고 있고 유치원을 졸업하고 학교에 갈때에는 학교 유니폼과 스쿨 백 그리고 학용품을 입학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매년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유치원생들이 늘어나 이제는 최대 인원을 65명 선으로 제한 하고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말라위를 방문하여 주신 네 분의 목회자에게도 거듭 감사드리옵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Youth Ministry



여러 가지 사역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고 심혈을 기울이는 사역이 바로 Youth Ministry입니다. 왜냐하면 평신도 제자 훈련이나 목회자 훈련은 대부분 장성한 성인들이어서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Youth Ministry 들은 영혼이 순수하고 배움에 대한 열망이 있어 가르치고 훈련시키면 대부분 그대로 순응을 하고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더우기 목회자들의 경우 66 성경구절을 다 외우면 핸드폰을 주겠다고 하였는데도 제대로 암송하는 목회자들이 없었지만 Youth들의 경우 참가한지 2주일 만에 성경 40구절 또는 66구절을 암송하여 우리 스태프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계기로 한국에서 방문한 어느 신학생이 도전을 받아 거의 3주 만에 66구절을 암송하여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Shackles 라는 파워댄스를 알콜중독 및 도박 문제가 있는 Chapata Village에서 45명의 Youth들이 함께 할 때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심을 느꼈습니다.

의미는 각종 억압이나 사탄이 묶고 있는 것들로 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Jesus와 Everything Drama 를 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직접 느낄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45명의 학생들에게 School Fee 지원과 아울러 컴퓨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역을 할 때마다 아내선교사는 그 많은 숫자를

다 먹을 수 있도록 계란을 몇 판씩 찌고 빵도 살때마다 10백씩 사서 대접을 합니다.

Youth Ministry는 우리 센터의 꽃이자 희망입니다. 그리고 말라위 다음세대의 주역들입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부탁드립니다.

- 100채 집짓기 사역



말라위는 한국의 50-60년대에 해당합니다. 오죽하면 말라위 국가에 굶주림과 질병과 시기질투가 3대 적이라고 규정하여 물리치자고 합니다.

한국 전쟁후에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 였지만 한국이 새마을 운동을 하고 많은 민족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지금은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선교사 파송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축복받은 일입니까?

현재 말라위는 60년대의 한국의 현실과 같기에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새마을 운동사역과 더불어 삶이 변할 수 있는 복음전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삶의 보금자리인 집을 새로 지어 주거나 아니면 안전하게 짓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곳 말라위에서는 매년 평균 번개나 벼락으로 약 800여명이 희생됩니다.

우선적으로 위험한 집들을 수리 개축하여 안전하게 살아 갈 수 있는

집을 건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2024년도에 센터마을인 차파타에 10채를 건축하였고 분다에 10채를 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분다 이웃마을에 10채와 LDM 리더들 집 10여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가 지어지고 안정되면 복음전파를 단계적으로 계층별로 이루어 갈 계획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속에서 이 사역이 주님께 영광돌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제목 \*\*\***

1. 헝거시즌 절정을 맞이하여 정부와 교회와 각 단체들이 지혜와 인내로 잘 극복하고 현지인들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2. 지금 진행되고 있는 Youth Ministry 중 학교 중도 포기자들이 학교에 빠지지 않고 잘 다닐 수 있도록 부모와 학생들의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3. 진행중인 새마을 운동사역 중 100채 집짓기 및 수리사역등 말라위 새마을운동사역과 재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4. 사륜구동 자동차로 운송과 옥수수구제를 할 수 있도록 빌리지에 갈 수 있는 손발이 되게 하옵소서
5.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기위해 젊은 동역자 및 협력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컴퓨터, 유치원, 청소년 영어교사, 그리고 재봉틀과 각종 직업훈련에 필요한 장단기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자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6. 한국에서 오는 단기선교팀의 일정을 주님께서 주관해주시고 은혜와 사랑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

1. 많은 분들이 본인의 후원구좌를 요청하여 부득불 게재합니다.

Keb하나은행 303-04-00004-887 예금주: GMP민경화

2. **2025년부터는 선교편지를 2개월 단위로 보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라위 민경화/홍희선교사드림

